

PRIDE KONKUK 2016

Leap for the Future, Soar up to the World
미래를 위한 도약, 세계를 향한 비상

201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[2차]



2014. 1. 15.

**건국대학교
등록금심의위원회**

2014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

1. 일 시 : 2014년 1월 15일(수) 14:00 ~ 16:00
2. 장 소 : 교학부총장실 회의실(행정관 2층)
3. 참 석

구분	인원	성명	비고
위원	9명	김용식(교학부총장), 김상익(기획조정본부장), 이승호(학생복지처장), 유상우(예산기획팀장), 박영선(세무사) 김관형(총학생회장), 장진혁(문과대학회장), 한용희(경영대학회장), 정환희(공과대학회장)	
간사	2명	윤규상(예산기획팀 담당), 백승엽 (학생지원팀 담당)	

4. 안건

- o 2014 예산(안) 내용 질의 및 답변

5. 회의내용

김용식 위원장은 위원 9명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,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. 2014년 예산(안)에 대해 학생대표의 질의 및 학교측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하다.

김관형 위원은 2014예산(안) 중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누어 편성하는 규칙이나 비율이 있는지 여부와 양 회계 수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.

유상우 위원은 2011년 교비회계를 등록금/기금회계로 분류하였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14회계부터 등록금/비등록금회계로 구분편성하여, 등록금회계는 등록금수입과 직접교육비를 계상하며, 또한 수지차이는 예산편성이 완료되지 않은데 기인하며 다각도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하다.

정환희 위원은 수지차액 부분은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질의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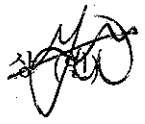
유상우 위원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초작업은 등록금과 인건비 동결을 가정하고 편성하고, 부족분에 대한 충당방법은 수입확충, 사업포기 등을 통한 예산절감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답하다.

장진혁 위원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 원칙이기에 국가장학 수혜로 교내장학 수혜금액이 낮아지면 미집행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의하다.

유상우 위원은 최초예산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 편성하며, 2012년부터 미집행 장학예산은 학기말에 추가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다. 2013년에도 미집행 장학예산을 가계곤란장학으로 전용하여 약 18억을 추가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

- 고 답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홍보부족으로 장학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총학생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.
- 이승호 위원은 2012년에는 문자 및 메일로 장학대상자에게 계속 홍보를 실시하였지만,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, 2013년에는 장학설명회, 홍보를 강화하여 장학예산을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.
- 한용희 위원은 등록금을 현 장학금비용 수준을 유지하되,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 지급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.
- 이승호 위원은 가계곤란장학 절대금액을 낮출수는 없고 현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답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등록금회계에서 수지차가 발생하면 비등록금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다.
- 유상우 위원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전입은 불가하고 직접 비등록금회계에 계상해야 하며, 2014예산의 경우 인건비 일부 등 등록금회계에 편성하여야 할 직접교육비를 이미 비등록금회계에 편성하였다고 답하다.
- 장진혁 위원은 전년대비 인쇄비를 많이 축소편성하고 있는데, 영문요람비는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다.
- 유상우 위원은 홈페이지 관리, 외국인유학생 유치홍보에 사용되고 있어 편성이 불가피하며 추후 국제처, 정보통신처와 협의하여 예산이 잘 집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공공요금은 약 4%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전년대비 약 18%상향조정 편성하였는데 이유를 질의하다.
- 유상우 위원은 요금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기인하며, 2013년에도 난방비 및 상하수도료에서 이미 약7-8억의 증액이 발생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18%증가 편성은 아니라고 설명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학생들도 캠페인등을 통해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절감된 비용을 학생지원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다.
- 유상우 위원은 학교본부에서도 각 건물별 공공요금 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절감한 단과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결산예상액 교원인건비가 523억인데 예산안에는 약 70억이 더 증액되어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.
- 김상익 위원은 본교는 지속적인 교원확보를 제고를 위해서 교원초빙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답하다.
- 유상우 위원은 교원인건비에는 비정규과정 특별강의료 등이 포함되어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자연상승분 및 교원채용효과로 인해 인건비가 다소 상승하고 있다고 답하다.
- 한용희 위원은 관리운영비가 약 70억 상승한 이유를 질의하다.

- 유상우 위원은 구 부속중학교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편성 효과라고 답하다.
- 장진혁 위원은 구 부속중학교는 어떤 용도이며 등록금수입으로 지출하는지 질의하다.
- 김상의 위원은 교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모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, 재원은 건축기금을 인출하여 집행한다고 답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2014년 법인전입금 규모에 대해 질의하면서, 더 클래식 500 100% 분양 등 수익창출에 따라 추가적인 전출을 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.
- 유상우 위원은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에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요청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법인전입금은 확정된 금액인지 질의하다.
- 유상우 위원은 2014년 예산편성 금액이며, 2014년 집행실적에 따라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답하다.
- 김상의 위원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있는지 질의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각 단과대학별 실험실습비 자료, 장학금 지급내역, 교원충원예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다.
- 이승호 위원은 실험실습비 자료는 각 학과별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하다.
- 정환희 위원은 지출부족금액을 등록금 인상을 통한 학생전가는 현 시점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다.
- 김상의 위원은 외국대학처럼 기부금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및 재단 전입금으로 학교운영을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,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수입에 맞춰 지출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다.
- 박영선 위원은 학교에서는 통상적인 인플레이션 등 현실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정된 수입예산에 맞춰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한다.
- 김상의 위원은 다음회의에서는 학생대표측에서 조정가능한 예산을 제시하고 학교측에서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학생대표 입장에서 절감 가능한 비용을 검토해서 제시하겠다고 답하다.
- 김상의 위원은 학생대표가 요구한 자료를 17일까지 제시 할 예정이며, 3차회의는 1월 21일 13:30분에 개최하자고 제의하다.
- 김관형 위원은 다음 회의일정에 동의하다.
- 김용식 위원장은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성실히 임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
기록(간사) : 예산기획팀 윤 규 

위 사실을 확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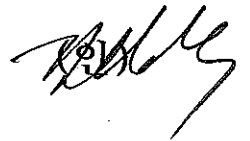
2014 1월 15일

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 김용식



위원 김상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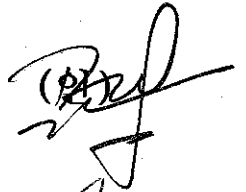
위원 이승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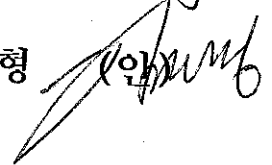
위원 유상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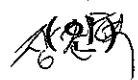
위원 박영선



위원 김관형



위원장 진혁



위원 한용희



위원 정환희

